

## 국가안보패널보고서 6호

## “북한 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 부록 목록

## &lt;부록1&gt;

2005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pp2-10)

## &lt;부록2&gt;

2004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 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pp11-20)

## &lt;부록3&gt; 북한 발표 자료 (pp21-23)

##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lt;북조선인권법안&gt;은 대조선 적대선언,” 조선중앙통신 (2004년 10월 5일)

## ■ 로동신문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30일)

##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를 규탄”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3일)

## ■ 노동신문

“북침을 겨냥한 모험적인 불장난 &lt;을지 포커스 렌즈-04&gt;,”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11일)

## &lt;부록4&gt; Nicolas Eberstadt's Paper (pp24-29)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Creating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February 12-13, 2004

## <부록1> 2005년 공동사설

###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새해 주체94(2005)년을 맞으며 1일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으로 된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국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경사의 해, 당창건 60돛과 조국광복 60돛이 되는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과 부강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크나큰 락관을 안고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있다.

지난해 주체93(2004)년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해였다.

지난해에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한길로 드팀없이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분출되었다. 지난해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며 혁명의 수뇌부의 향도따라 붉은기를 지켜 역세계 싸워온 나날들을 떳떳이 총화한 력사의 해로 기록되었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 높이 로동당시대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던 1970년대처럼 살며 투쟁하려는 드높은 정치적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쳤다. 우리 당 선군정치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된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생산적양양이 일어났다.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시련속에서 간고분투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어온 모든것이 도처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희한한 현실은 우리 인민에게 강성대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문화가 온 사회에 흘러들어 어디에 가나 전투적기백과 열정이 약동하고 우리의 투쟁과 생활은 더욱더 희열과 랑만에 넘치게 되었다.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전통이 굳건히 고수되고 생활환경이 사회주의맛이 나게 더욱 훌륭히 변모되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였다.

현실은 선군의 기치밑에 나라의 군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절대적인 령도적권위와 백승의 정치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수호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거창한 변혁의 설계도와 기적창조의 명안을 밝혀주시고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혁명적공세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인민군대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시대적본보기와 경험들이 창조되고 도처에서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선군을 애국의 보검으로 틀어쥔 위대한 정치가만이 펼칠수 있는 자랑스러운 현실이다.걸음걸음 승리와 전변으로 수놓아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선군의 길을 따라 이 땅의 모든 번영과 행복이 온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주체94(2005)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창건후 지난 60년동안 간고한 투쟁과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에 이어 우리 당을 창건하신것은 조국과 혁명, 민족의 앞길에 빛나는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60성상에 걸치는 우리 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며 가장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 반제투쟁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온 위대한 력사이다.

세상에는 우리 당과 같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세기를 이어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해온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어 준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고 창건 60돐을 맞는 혁명적당은 없다.

《트.ㄷ》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여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반세기이상에 걸쳐 온갖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며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특기할 정치적사변으로 된다.경애하는 장군님의 40여성상의 혁명

령도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이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광떨치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우리 당의 60년력사에서 지난 10년간은 최악의 역경을 뚫고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이룩한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이 있어 우리 당의 60년력사가 더욱 영광스럽고 우리 조국과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당의 선군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간고한 시련속에서 광명한 래일을 굳게 믿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다져놓은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위력을 총발동하여 우리 혁명발전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력사적시기가 도래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것, 이것이 올해 우리앞에 나서는 총적인 투쟁과업이다.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는 구호를 들고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일심단결은 조선혁명의 밑뿌리이며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필승의 보검이다.

우리 당의 60년력사의 최대의 자랑은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한데 있다.

일심단결의 근본핵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위대한 사상과 전략전술로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는 천만군민이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마다에는 가는 길 험난하고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려는 절대불변의 각오,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혁명적인생관이 뜨겁게 맥박쳐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에는 오직 주체의 선군사상만이 차넘쳐야 하며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원히 생사를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들의 단결로 되여야 한다.

간고하고 준엄한 년대기마다 당과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온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누구나 자기 수령,자기 령도자가 제일이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가장 정당하다는 드팀없는 확신,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라는 혁명철학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억세계 싸워나가야 한다.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구현하여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를 더욱 활짝 꽃피우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당 선군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령장이시다.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무장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총대중시,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군건설업적과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선군정치방식을 창조하시고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반제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력사적공적이다.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다박술초소로부터 시작하여 간고한 10년동안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마련하신 모든 업적과 전통, 재부들을 주체혁명의 만년초석으로,민족의 제일가는 국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이다.전군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최고사령관의 제일결사대,제일총폭탄이 되여야 한다.인민군대안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모든 장병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피와 살도 함께 나누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21세기의 리수복,김광철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드세차게 벌려 투철한 사상과 우월한 전법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야 한다.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화,사회주의애국주의화를 더욱 다그쳐 혁명군대의 고상한 풍모를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인민군대는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이다.빈터우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군사를 중시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기풍이 더욱 높이 발

휘되게 하며 누구나 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군인품성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그 어떤 침략자도 무적필승의 혁명군대가 지켜 서있고 결사의 조국보위정신을 지닌 인민이 있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확고히 실현된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기름진 땅을 한치도 건드릴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올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희망찬 래일을 내다보며 간고분투하여온 보람을 크나큰 환희와 격동속에 체험하게 될 사변적인 해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마련된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1950년대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을 이룩함으로써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경축하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대고조의 력사적전통을 이어 부강조국건설에서 다시한번 비약을 이룩하려는 전체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애국적열의의 분출이며 혁명적군인정신과 21세기 경제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구현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총진군방식이다.

우리에게는 당의 정확한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이 있고 《고난의 행군》의 역경도 웃으며 돌파해온 영웅적인 전통과 기질이 있으며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달려나갈수 있는 창조와 건설의 본보기들이 있다.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할 때 우리에게는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다.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령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모든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를 잘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 백마-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자면 당조직들이 농업부문 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한다.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성장의 모범을 따라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이 높여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경제지도 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의 문화건설방침을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혁명적군인문화가 활짝 꽃피나게 하여야 한다. 노래도 있고 정서도 있고 누구보다 생활을 뜨겁게 사랑하는것이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민군군인들처럼 풍만한 정서와 혁명적열정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고 살림살이를 간지고 이악하게 해나가는 인민군대의 모범을 온 사회가 본받아야 한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하고 인민들에게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혁명의 장래를 위하여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실력있는 혁명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보건일군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전투력을 높이는데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창건 60돛이 되는 올해에 당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의도를 절대화하고 결사적으로 받들어나가며 혁명적군인정신과 인민군대식정치사업으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대중을 발동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선군사상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반미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사람들의 심장과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과 마음을 움직이는 리상적인 선전일군이 되어야 한다.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참신하고 쾌기있게 하여 온 나라가 선군혁명총진군분위기로 끓게 하며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이 수많은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며 당, 행정배합을 잘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선군혁명대고조의 앞장에서 위훈을 떨치며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의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승리의 열쇠는 일군들이 쥐고있다. 당정책에 민감하고 높은 실력을 가지고 일하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일군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배기일군이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높은 혁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창조적으로 결괏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새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탐구하고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담보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해나가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힘있는 역량이다. 올해 선군혁명대고조의 앞장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해야 할 전위기수도 청년들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잘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워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언제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이어 올해의 총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전투적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위훈을 부르는 초소마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 선군시대청년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올해의 선군혁명충진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한다.

조국과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온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애국적전통이다.

우리는 전후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며 사회주의강국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르던 그 투지와 본때, 준엄한 시련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던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다시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삶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의 아들딸답게 누구나 다 사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들어서야 한다.

올해에 조국광복 60돐을 맞게 되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적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어가고있다.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이다.

올해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5년간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나날이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였다.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린 지난 5년간의 극적인 사변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서는 구호이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나라의 절반땅이 40여년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60년간의 미군강점으로 100년나마 외세의 지배하에서 자주권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온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

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약화시키며 매장해버려야 한다.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하여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당할것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강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통일애국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통일애국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조선민족의 녀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통일애국의 흐름에 뛰어들어 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련대련함을 실현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조국통일운동사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의 날강도적인 침략과 강권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오늘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으며 이로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적리념을 일관하게 구현해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세기의 폭풍우를 뚫고 백전백승을 떨쳐온 위대한 혁명적당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자주적인민들의 값높은 삶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력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이다.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용기는 천백배로 끓어오르고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끝)

## <부록2> 2004년 공동사설

###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새해 주체93(2004)년을 맞으며 1일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된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위대한 승리의 리정표가 아로새겨지게 될 새해 주체93(2004)년이 밝아왔다.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지켜 선군의 기치높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더없이 보람찬것으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드높은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주체92(2003)년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 영웅적투쟁의 해, 첨예한 정세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공화국창건 55돐을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장식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섰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비상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공화국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함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이고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지난해에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일심단결과 우리 식의 국가정치체제가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를 계기로 령도자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고 수령결사옹위대오의 위력이 백배해졌다.

우리의 국가정치체제는 일심단결의 공고한 초석우에 뿌리내리고 선군의 원칙을 구현한 불패의 사회주의정치체제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체제이다.

지난해의 뜻깊은 사변들을 통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령도따라 군혁명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지난해에 나라의 자립적경제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문화생활이 더욱 꽃피나게 되었다. 전체 인민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완강한 투쟁을 벌려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들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으며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에서 훌륭한 경험이 창조되었다.

민족적풍습이 장려되고 문화정서생활이 풍만해짐으로써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량만과 기백이 약동하게 되었다.

지난해의 투쟁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이악하게 투쟁할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지난해에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개가 높이 펼쳐졌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침예한 핵위기가 조성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압력과 강권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독자적인 결심과 주견에 따라 자기가 갈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과 의지는 강경하였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죽음도 두려움없이 맞받아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반제투쟁의 진리를 과시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지난해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가, 위대한 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의 승리, 신념과 배짱의 승리이다.

비범한 통찰력과 정치적결단성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지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온갖 난국을 헤치며 승리해 나가게 한 근본비결이었다.

강철의 의지와 무한대한 정력으로 온 한해동안 끊임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은 조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위인만이 수놓을수 있는 영웅서사시적행로였다.

군대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는 천만군민의 심장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온 나라에 전설같은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지게 하였다.

강성대국건설에서 또다시 큰 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령도의 정당성과 생활력, 조국과 민족의 밝은 전도에 대한 힘있는 증시로 되다.

주체93(2004)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우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사변들을 안고있는 력사적인 해이다.

걸어온 투쟁의 천만리를 돌이켜보고 가야 할 선군의 머나먼 길을 내다보며 새해에 들어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앞에는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 신성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이며 김

일성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총대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10년은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고 우리 조국과 혁명이 영원히 승리하며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한 불멸의 투쟁행로였다.

시련과 난관은 형언할수 없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로만 곳곳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였으며 이 길에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것이 지나온 10년력사의 귀중한 총화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지난 10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의 절대적인 권위와 령도체계의 확고부동성, 백승의 정치실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올바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향도자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이다.

독창적인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방식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끄시여 주체위업의 명맥을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의 더없이 고귀한 재부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마련하신 업적과 재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조국과 혁명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지향이며 의지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선군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섰다.

이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 올해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선포 30돛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에서 축적된 정치사상적 및 군사경제적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도 백승을 떨칠수 있었다.

우리는 전당, 전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기치밑에 마련되고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더욱 억세게 다져진 무진장한 힘을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우리는 올해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전진해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 당과 군대와 청년들앞에 나서고 있는 총적인 투쟁과업은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강성대국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공세를 벌리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전당, 전군, 전민이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을 안고 떨쳐일어나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혁명승리의 장엄한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야 할 때이다.

정치사상전선에서부터 혁명적공세를 벌려야 한다.

정치사상전선에서의 공격전은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에 강력한 반타격을 안기는 전면적인 공세이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선포된 30돛이 되는 올해에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며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핵으로 하는 일심단결은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최강의 무기이다. 당조직들은 전체당원들과 인민들,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로 준비시키는데 사람과의 사업,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의 선군혁명대오안에 수뇌부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키는것은 우리 혁명과 시대발전의 요구이다.

당조직들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선군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체득시켜 누구나 다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군인품성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세와 현실은 사회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며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것을 절대적진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위하는 아름다운 집단주의적소행이 우리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락천적인 기질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는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신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가지고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과 반제투쟁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쪼먹고 우리 내부를 와해하려는 제국주의의 비렬한 책동에 무자비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

자주적인 삶을 귀중히 여기는 강한 계급적자존심, 자기의것을 끝없이 사랑하며 피로써 수호하고 꽃피워온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을 목숨과도 바꿀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온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양식과 생활기풍을 확립하여 우리 식이 아닌 그 어떤 요소도 습세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처럼 당사상사업이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대중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혁명은 반제투쟁의 기치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혁명이며 반제군사전선은 선군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다.

군력강화를 최우선적인 중대사로 내세워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인민군대는 반제군사전선의 제일기둥이며 주체혁명의 강력한 수호력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고수해나가야 한다.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세우는 사업을 당정치사업의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밀고나가며 모든 장병들을 선군사상, 선군정치, 절대옹호자, 결사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뇌부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위력떨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모든 면에서 선군시대의 기수, 본보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견결한 반제투쟁정신과 높은 대적관념을 가지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적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전쟁을 강요한다면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를 관병일치, 군민일치, 군정배합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최강의 혁명군대, 정규화적면모에서도 손색이 없고 군사기술적위력에서도 당할자가 없는 가장 존엄있고 위풍당당한 정예무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제군사전선을 강화하는것은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이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진행하며 민간무력을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선군시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백승의 위력한 담보인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현 시대에는 경제, 과학분야가 나라의 국력을 담보하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요전

선으로 되고있다.

경제과학전선에서의 오늘의 공격전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우리는 올해에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라는 구호를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선군시대 경제와 과학기술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현대화되고 활력있는 경제와 과학기술로 되어야 한다.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쓸모있게 건설하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령활하게 하여야 한다.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립업부문에서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사이물길공사를 다그쳐야 한다.

온 나라에 일떠선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국사이다.

우리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애국적열의를 발휘하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에 따라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과학자, 기술자후비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괏있게 내밀어야 한다.

새 세기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일체화되어 발전하는 시대이다.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며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해나가야 한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은 나라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데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과 민족,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40성상에 걸치는 당령도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더없이 고귀한 재부이다.

세계정치무대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이 장구한 기간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면서 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업적을 쌓아올린 정치지도자는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돛이 되는 올해에 우리는 당의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오늘의 총공세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혁명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1970년대의 사업기풍, 투쟁기풍으로 일해나가야 한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일군이 장엄한 혁명적공세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준엄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절대로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며 장군님따라 고난과 사신을 헤치던 불굴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일해나감으로써 3대전선에서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려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대오이며 혁명의 수뇌부를 받들어 선군위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세대이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굳건히 고수하며 수령 옹위의 결사대, 당정책관철의 힘있는 돌격대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전선에서의 총공세를 선군정치방식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전선에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내세우고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군정배합의 모범을 따라배워 당, 행정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며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 구령의 요구대로 충공세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방식에 구현되어있는 사생결단의 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세로 투쟁해나갈 때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해였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떨치는 의의있는 사변들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가 열리고 동서해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게 된 것은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일이다.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그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을 절대로 갈라놓을수 없고 반미자주, 민족공조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이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투쟁이 확증한 첩리이다. 올해에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꽃피워온 자랑할만 한 단일민족이며 지혜와 재능, 슬기에 있어서 남다른 우수성을 가진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빛내이려는 높은 각오,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존엄있고 튼튼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닐 때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기치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올해 통일운동에서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민족의 운명은 우리 겨레자신에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는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단합과 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찬란한 민족사를 개척해온 민족답게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위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립장과 의지를 가지고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미국이다.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하여야 전쟁위험도 모면하고 경제적인안정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통일도 북남관계개선도 달가와하지 않으며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든 핵참화를 입든 가리지 않는다.

북과 남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의 반평화,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에 저촉되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을 반영한 조국통일대강이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사람이라면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야 한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참다운 애국애족애민의 정치이다.

선군정치를 받드는 길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번영이 있으며 평화와 통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선군정치를 한결같이 지지옹호하여야 한다.

지난해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책동으로 하여 세계평화가 엄중히 침해당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다.

현실은 미국의 《힘의 논리》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수호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부쉬행정부의 극심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일관하다.

그러나 우리는 존엄있는 우리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인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언제나 초강경으로 대응할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선택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이다.

다음해 주체94(2005)년은 조선로동당창건 60돐, 조국광복 60돐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창조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맞이하게 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올해의 총공세는 다음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책임적인 투쟁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당창건 60돐과 조국광복 60돐을 기세드높이 마중해나가야 한다.

그 어떤 힘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의한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꺾을수 없으며 그 누구도 무적의 군력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과감하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가는 앞길에 시련의 천만고비가 막아선다 해도 최후승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자기 운명을 제손에 틀어쥐고 자주의 길로 용감무쌍하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당과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끝).

### <부록3>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모음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안>은 대조선 적대선언,” 조선중앙통신 (2004년 10월 4일)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회상원에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이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회상원은 내외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하원에서 제출한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것을 일부 수정보충하여 끝끝내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조선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체제의 전복활동에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들에게 미국정부의 예산으로 매해 2천 4백만 US\$를 지출한다고 규제하는 등 시종일관 악랄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독소조항들로 가득차있다.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그것을 가결하기 직전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이란자가 《옛소련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정권의 몰락도 멀지 않았다.》고 떠벌인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존엄높은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체도의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진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놓은 또하나의 대조선적대선언이다.

우리 체제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골수에 차있는 미국이고 보면 그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되어 날뛰는것이 별로 이상할것은 없다.

그러나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락인되고있는 미국이 아직도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가타부타하는것은 인류의 량심을 우롱하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이라크에서 비법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러한 미국이 아무리 체면상실증에 걸렸다한들 이라크의 피바다우에서 《세계의 안전》을 부르짖으며 《인권》에 대해 논하는것은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

미국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재정물질적으로 적극 후원하는 한편 일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며 우리 제도 《전복》을 위한 본격적인 환경조성에 달라붙고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의 정책만을 추구하면서 존엄높은 우리 식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고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한사코 강요하려 드는 부쉬행정부와는 오직 대응한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절감하게 하고있다.

미국은 우리와의 공존을 전면부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는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섬으로써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미를 상실케 하고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은 고사하고 미국과 상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미국과 힘으로 끝까지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우리 체도를 말살하려 들면 들수록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더 굳세여지고있으며 미국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맞받아 짓부셔버릴 적개심은 더더욱 높아지고있다.(끝)

**■ 로동신문,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29일)**

(평양 9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지금 미국은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미제의 군사적도발책동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기어이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단합하고 공조하여 침략적인 미국의 새 전쟁도발기도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과 남의 인민들은 다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위업의 주인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마땅히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러자면 단결하여 반미반전공동투쟁을 벌려야 한다.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오직 자기 민족을 믿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확고한 립장과 의지만이 필요하다. 미국은 절대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저들의 침략적인 리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이 영영 둘로 갈라지든 핵참화를 들쓰든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에 의존하여야 전쟁위험을 모면하고 경제적인안정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허황한 망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날로 증대되는 전쟁의 위험을 반드시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가서버려야 한다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굳게 가지고 싸워야 한다.(끝)

**■ 노동신문, "북침을 겨냥한 모험적인 불장난 <을지 포커스 렌즈-04>,"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11일**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로동신문》은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사이에 《을지 포커스 렌즈-04》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전쟁연습에는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 그리고 6,000여명의 해외주둔 미군이 참가한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에 대한 용납못할 침략적도전이라고 단죄하였다.

신문은 《을지 포커스 렌즈-04》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미제의 대조선침략전쟁도발책동은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대화의 막뒤에서 군사적침략을 피하는 호전적인 부귀정권은 그 실현을 위해 남조선강점 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기지이전놀음을 본격화하는 한편 130억US\$분의 대규모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최첨단무기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련속 끌어들이고있다. 얼마전부터는 《작전계획 5027-04》라는 새로운 모험적인 북침전쟁각본을 짜놓고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있다.

《을지 포커스 렌즈-04》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될 경우 조선반도에는 전쟁이 터질수 있는 최악의 긴장이 조성되게 될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의지를 나약성으로 잘못 보고 선불질을 한다면 우리는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 무적의 선군총대로 도발자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할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말끔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공조》하며 민족을 반역하는 죄악을 계속 저지른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끝).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를 규탄”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3일)**

조선외무성 대변인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를 규탄(평양 8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대량 유인랍치해가는 모략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사촉과 지휘에 따라 대부분이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수백명에 달하는 우리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우리 주변을 통하여 월남에 유인하여 놓고 남조선에 집단적으로 끌여가는 이른바 《대량탈북 및 이송》 사건을 조작하였다.실제상 이번에 《탈북자》로 둔갑한 우리 주민들의 대부분은 친척방문차로 중국동북에 건너갔다가 적정탐기관들의 마수와 유인전술에 걸려 든 사람들이다.미국회 하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예견한 《북조선인권법안》이란것이 채택된지 불과 한주일도 못되어 《대량탈북자》 사건이 조작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언론들은 때를 만난듯이 《대량탈북은 북조선정권의 주민교양,선전,통제에서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떠들면서 그것이 《북조선붕괴로 이어지면 최상의 씨나리오》로 될것이라고 환성을 올리고 있다.이것은 이번 사건이 철두철미 우리 《체제전복》을 최종목표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북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바라는 남조선불순분자들의 의도적인 책동임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모략사건에 월남이 공모해나선것이다.우리는 월남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있다.월남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저들의 리해관계를 위해서라면 국가들사이의 초보적인 의리와 도덕마저 저버리는 신의없는 행동도 쉽게 할수 있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우리는 미국의 사촉하에 인도주의간판을 들고 우리 공민들을 협박,유인하여 팔아먹고있는 일부 비정부단체들의 국제적인 인신매매행위도 반드시 계산할것이다.미국이 《탈북자》문제를 조작하여 우리를 옛 동유럽나라들처럼 녹여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태양을 없애보겠다는것과 마찬가지로 부질없는 것이다.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물론 조미사이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끝).

#### <부록4> Nicholas Eberstadt's Paper

###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 **Crafting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Nicholas Eberstadt was introduced by Hon. Park Kun-woo, visiting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in Yongin, Korea. Ambassador Park is the former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was the chief Korean delegate to the four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beginning in 1998. His distinguished career with the Foreign Ministry included serving as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1995-1998), Canada (1991-1994), and Colombia (1985-1991). After retiring from the foreign service, he became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NGO Studies at Kyung Hee University from 2000-2001.*

Thank you very much, Mr. Ambassador. It's a pleasure to be here today, not least because some of my teachers are here in the room. I started trying to learn about North Korea more than two decades ago, an endeavor that is still a work in progress. I'd be remiss if I didn't mention the kindness of David Steinberg, Sakong Il, and Bill Newcomb, who helped me start out on those studies. Of course, they'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that happened after that.

Yesterday some people mentioned the phrase "Grand Bargain." I'm glad to see Ashton Carter from Harvard here, because some of Ash's colleagues were involved in proposals for an earlier grand bargain, with Gorbachev's Soviet Union in the late 1980s. The idea was that international aid, to the extent of maybe \$40 or \$50 billion, could be mobilized as a transfer to the Gorbachev government to encourage it to engage in market reform and to stand down, some of its military menace. In the event, of course, the Soviet system collapsed, the military was demobilized, the market was privatized, and we didn't have to give away that money. That "grand bargain" ended up an even grander bargain than initially imagined--which in a roundabout sort of way brings me to the question of North Korean collapse.

For some reason, there are people in this room who seem to associate me with the notion that North Korea might be a state on the verge of collapse. I can't imagine why anybody would have that sort of idea! It might have started with an op-ed piece in 1990, called "The Coming Collapse of North Korea," and there might be a few other little things since then. North Korea obviously has not collapsed. It is here with us today, alive if not well, and that means I have some explaining to do.

If one believes that the odds of DPRK survival are low--and have been low for some time--how does one then explain the survival and continuation of the DPRK? And further, how does one look at the future prospects for this system? I try to go into all this in the paper I'm presenting.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goes through what I call the epistemology of state collapse: how would you know in advance that collapse is nigh? I argue that for all of the quantitative examinations we can make, anticipating a big change in a state or system is more of a matter of art than of science.

There are different sorts of mistakes that can be made in predicting in big political changes. One



is to miss the big changes. As Anders Aslund mentioned this morning, that error is more or less exemplified by the history of Sovietology: missing the big changes in the works. Another type of mistake that can be made is predicting incorrectly big changes. That certainly is the case in some of the revolutions that didn't occur: South Africa, perhaps; Spain is another--post-Franco Spain is another example; perhaps the DPRK today. But that doesn't exhaust the range of analytical mistakes I think one can make, and one of the mistakes that I dwell upon a little bit in this paper is the mistake of missing, or not understanding, an imminent but averted collapse. There are real cases--these are not simply hypothetical--where systems or states come to the verge of collapse and have been saved at the last moment. The example that I offer is an Ottoman Empire example: the case of Gallipoli. Gallipoli is remembered today from the Peter Weir movie and a little bit of history--Churchill's being sacked, and his lifelong agony about that. It is remembered as an allied British Commonwealth disaster. What was not known to the allies until after the end of the war was that the Ottomans and their German advisers thought they were defeated--they thought the game was over. They had no means of defending Constantinople from this naval invasion. They were out of ammunition. They had moved the state archives. They had moved the money out of the state treasury. Revolt was starting in the city. And then, to the delight and surprise of the Ottoman government, for some inexplicable reason, the Brits halted. The Turks and Germans reinforced, and Gallipoli turned into a disaster for the Brits. It is an interesting tale to bear in mind.

Now let's talk about the DPRK. Of course it is not self evident that the Gallipoli analogy holds here. I do want to talk about the prospect of DPRK state collapse--but I do not want to talk about the prospect of a coup, or a putsch, at the top. I have no way of knowing about such movement at the top of the system. Nor do I wish to discuss the prospects for a revolt from the bottom. If that ever happens, people on the outside will be the last to know, not the first. What I want to focus upon is a particular type of possible systemic collapse, namely economic collapse. This is a phrase, of course, which enjoys broad and often fuzzy usage. I've tried to use it in a very specific way. Jack Hirshleifer, of RAND and UCLA, talks about economic collapse in terms of the breakdown of the division of labor in a system--not hunger, not a slump, not a depression, not a dislocation--a breakdown in the division of labor within a system or an economy. In a system like the DPRK, the most pertinent way of framing that would be to say, "a breakdown of the ordinary mechanisms through which one can trade labor for food." We will frame the concept of "DPRK economic collapse" in those terms.

Let me show you some quantitative data that bear on the DPRK's risk of economic collapse and how that risk has changed. These are mirror statistics: reconstructed trends of DPRK imports as reported by its trading partners. They are hardly perfect, but they provide a first approximation. You'll see that from 1990 to 1994 DPRK imports dropped very substantially: dropped by about half. You'll also recall that the period from 1994 to the beginning of 1998 was a period described in DPRK terminology as the "arduous march." It was also the time of mass famine. Estimates of the death toll during the famine years range from Pyongyang's asserted 250,000 to maybe a million, or maybe even more--not a trivial number in humanitarian terms, nor is it a trivial number for a country of 20 million people.

Now look what happened to DPRK imports after 1998. (This is the period when Kim Jong-Il formally acceded to the highest living post of state.) Imports seem roughly to have doubled by 2002. The 2002 level is not a terribly high level, but in comparison to the recent past, it's not low either. It is as high as anything in the post-Soviet period.

How was this financed? Well, trying to reconstruct merchandise exports presents something like this: one sees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DPRK legitimate, or admitted, commercial exports since 1998, but really not terribly much of one. There is a great big merchandise trade deficit there. The unexplained financing of imports from abroad has risen from about \$500 or \$600 million a year in the starvation years of the "arduous march" to about \$1.2 billion now--not a lot of money in the scale of the modern world economy, but the number has more than doubled. For the DPRK, this is not a trivial change: the starvation era seems to have ended, although I'll talk about that in a moment.

So what happened? The presumption is that China is the great patron for the DPRK. In the early post-Soviet period, if one looks at the balance of trade deficit with China as being a sort of implicit proxy for genuine aid, China was certainly the major patron of those initial Kim Jong-Il years.

But if we take China out of our trade-deficit tableau, we'll see something interesting. If you exclude China from the DPRK's balance of trade deficit, you'll see that the unexplained surfeit of imports over exports dropped very substantially after the end of the Soviet Union. During the years of starvation, 1994-1997, it's terribly low. Then, like a taepodong rocket, it goes right up after 1997 and continues to rise through to the end of these mirror statistics (which always lag after reality; the year 2002 is as far as I've been able to do them).

How do we explain this surge in unidentified non-China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system? I can't break it down for you. Some of it is drug money. Some of it is counterfeiting. Some comes from the "nuclear homework club," I imagine. But an awful lot of it is "engagement policy." That is to say: aid from South Korea, from Japan, from the United States, from the EU--from the Western world. We don't know exactly how much has been given, because the prosecutors in South Korea are still at work. We've learned bits and pieces about additional illegal transfers of ROK taxpayer money to the North, and I imagine we'll learn more in the future. But suffice it to say that this upward trend in Figure 4 since 1997 is explained in the main by Western "engagement policy"--and the upward trend is inversely related to the risk of North Korean economic collapse.

All this may sound surprising, considering the oppositional rol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held by Washington and Pyongyang.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in the last decade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 major patron and financier of the survival of the North Korean state. I'm borrowing Mark Manyin's work to underscore this point. U.S. taxpayer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state from 1995 to the present amounts to a bit over \$1 billion. Interestingly enough, in 2001 and 2002, the first two years of the big bad Bush administration, U.S. taxpayers spent \$350 million on oil and food aid for the DPRK.

Looking a little more closely at the ratio of aid to exports, the DPRK today seems to be the most heavily aid-dependent economy, out of these many strategic partners and interesting states, in

the U.S. bilateral policy portfolio in the five years of aid, from 1996 through 2000. The reported ratio of aid 1996-2000 to exports 2000 was 35 percent for Jordan; for Israel, 34 percent; for Egypt, 67 percent; for Haiti, 96 percent. For the DPRK that ratio was 101 percent.

It is also interesting to compare this "aid-dependence" for the modern-day DPRK state to some earlier historical cases, such as U.S. support for Taiwan and the ROK during the Cold War. DPRK aid dependence today is not anywhere near being in the same league as the U.S. effort to help the South Korean state survive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It's not even in the same league as the U.S. financing of Taiwan's survival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today the United States is no longer the only aid game in town. If one were to add in South Korean and Japanese and EU and other aid to the DPRK, we'd be getting to a level not quite as substantial as Taiwan's old circumstance, but not that different. Inflows of aid to the DPRK, in relation to the state's own export capacities, would look something like the international aid effort to promote the survival of Taiwan in the late 1950s.

To repeat: these calculations cast no light on the prospect for political change or political coups in the DPRK, and they certainly don't tell us why the police system has kept intact there. But they do help us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has avoided a strictly-defined economic collapse. Today we tend to think of the DPRK as an economic basket-case--and that it is. But North Korea was not always the poorest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was not always the state with the worst export cap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nly has to go back as far as 1980 to see per capita exports of the DPRK roughly in league with Turkey, and the ratio of exports to imports, which are now grossly imbalanced for the DPRK, a bit more in line with South Korea's. Things had already started going downhill by 1990, when the Soviet Union was still North Korea's major export market, and now, in the year 2000, we're looking at a DPRK whose export profile more closely resembles Niger than Turkey.

Why? I offer two reasons in the paper, both bearing on calculations of state survival. The first is the slogan, "ideological and cultural infiltration," which is oft-discussed in DPRK media and statements. Briefly said, "ideological and cultural infiltration" brought down the Socialist systems of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the DPRK's official rendition of that tragedy. And exactly what is "ideological and cultural infiltration"? Well, it includes what Pyongyang calls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rac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So it is perhaps no coincidence that the absolute total of exports that the DPRK has managed to sell in "capitalist" countries has stayed more or less flat, from 1980 to 1990 to 2000, despite the obvious exigency of finding new markets after the Soviet collapse and despite the vast and growing markets that were available in these capitalist countries for generating export revenue. The failure to export is not totally a failure. It's partly a success--a successful avoidance of "ideological and cultural infiltration."

The other aspect of current calculations has to do with the "military-first politics" that are currently at the forefront of the kangsong taeguk movement, the "strong and prosperous state" movement, for the DPRK. Let me just read to you, if I might, one little paragraph trying to explain what military-first politics is all about. This is not me. This is Nodong Shinmun.

"A country's development and the placement of importance on the military are linked as one.

Once we lay the foundations for a powerful, self-sustaining national defense industry, we will be able to rejuvenate all economic fields, to include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and enhanc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Ladies and gentlemen, let us dwell for just a second on the phrase, "a powerful, self-sustaining national defense industry." When have you ever heard of a defense industry that is "self-sustaining"? Yet they believe they can have one in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is made to generate revenues for the state through international military extortion. It's that simple.

Given where the DPRK is now, with a situation bounded on one side by an allergy to export-oriented growth, and on the other side by the precarious calculations of international military extortion, can we see a way to achieve a more stable survival path for the DPRK state? To many of us, the most obvious approach would be reform and opening. We've talked about that already at this conference. Many of us here, in fact, have already written a little bit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July 2002 reforms. It is indeed significant that national leadership calls these "reforms," although as far as I can tell it hasn't yet dared to write that on paper. Talk of reform has usually been with foreigners or overseas, rather than in Nodong Shinmun, or Kyongje Yongu, or any of the other doctrinal publications for the DPRK. But that's okay--it is similar to the way reform started in China or Vietnam.

What are the July 2002 reforms? We can obviously debate this. But I think there's maybe a little bit less there than meets the eye. As far as I can tell, what the 2002 reforms really did was to remonetize a rather small portion of the economy, i.e. the consumer sector, in a largely demonetized economy--an economy which in fact was as demonetized as anything within living memory, shy of Khmer Rouge Cambodia. Remonetizing a limited portion of the economy is to be welcomed. It improves the quality of the consumer sector.

But it is important to also understand what such a limited remonetization does not do. It does not necessarily lead us towards market reform. If one were simply trying to reimplement orderly socialist planning, one would also have to remonetize the national economic system. Professor Kimura Mitsuhiro coined a wonderful phrase, the DPRK as a "planned economy without planning," that probably describes the post-1993 situation. Certainly,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plans offered since the miserable completion of the 1993 plan.

Furthermore, remonetization of a limited portion of the economy in itself doesn't necessarily lead to economic upturn. The sorts of supply responses that we'd need to see for that would depend upon a more fundamental reallocation of factors of production in the economy, and not to put too fine a point on that, we haven't seen any of this in North Korea yet. How do I know we haven't seen a big supply response? Well, I can cite some evidence. To begin, the black market value of the DPRK won has plunged from the July 2002 level of 152-153 to the dollar to, what now, 1000, 2000, to the dollar? This is not what one would expect if one were seeing a strong supply response from the domestic economy. (We've also seen this contrivance of the People's Life Bonds, which Mark mentioned yesterday, which soak up wages for people and payments for enterprises.) And just this week, the World Food Program warned that North Korea would slump back into mass hunger if new food aid shipments weren't approved. That's not exactly the

srot of "supply response" I meant?

Will we see a movement to a China-style or Vietnam-style export orientation? We'll have to see rather more in the way of systemic changes in the DPRK before we can begin to imagine that. I mention three things in my paper that we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if we think something like this may be underway.

The first, of course, is a real economic opening itself, and I describe the sorts of blinker lights that we might see if there were a move towards economic opening in the DPRK.

But an economic opening per se isn't enough, because the DPRK, as was mentioned this morning, is a very different system from the real existing economies of Vietnam or China (or the way they were back at Doi Moi or in December of 1978). One of the big differences is the military. With the huge military of the DPRK, there would have to be an enormous demobilization of the conventional military--and if the DPRK is going to move to something other than military extortion to make its living, there would probably also have to be some sort of a settlement on the ques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ere can't be a settlement on the WMD question, and there can't be a demobilization of the DPRK military, until and unless the DPRK normalizes relations with South Korea. Unless and until the DPRK recognizes and accepts the right of the South Korean state to survive on that peninsula, these other things, cannot happen. If there is a genuine move towards accepting the legitimacy of the South Korean state, I don't think it will be hidden in the thickets. We'll know it when we see it.

*Nicholas Eberstadt is the Henry Wendt Scholar at AEI (끝).*